안타까운 산불… 산불…

광주·전남 10개 시·군 건조특보 … 4월에만 17건 발생

진도에 건조경보가 내려지는 등 광주와 전남지역 10개 시·군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주말과 휴일 산불이 잇따랐다.

산불방지 특별비상경계령이 발령된 가운데 광주시 등 행정기관에서는 지난 11일과 12일 전직원이 비상근무에 나서고 산불조심 캠페인까지 벌였지만 입산자 등의 부주의에 의한 산불까지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2일 오전 9시께 광주시 광산구 용진산 자락에서 불이 나 임야 0.1ha를 태우고 50여분만에 진화됐으며, 새벽 4시20분께 고흥군 고흥읍 호동리 야산에서 불이나 임야 0.3ha를 태우고 5시간만에 꺼졌다.

앞서 11일 오후 2시40분께 순천시 가곡동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19시간 동안 임야 2ha를 태우고 진화됐다.

또 같은 날 오후 1시10분께 무안군 청계면에서 산불이 나 0.5ha를 태우고 2시간여만에 꺼졌으며, 오전 11시 40분께 장흥군 부산면에서 산불이 나 0.3ha를 태우고 1시간30여분만에 꺼지는 등 주말 산불이 잇따랐다.

시·도에 따르면 올 들어 발생한 산불은 총 40건에 피해 면적만 18.28ha며, 이 중 4월에 발생한 산불이 17건(42.5%), 6.95ha(38%)에 이르고 있다.

특히 4월에 발생한 산불 17건 중 단 1건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입산자 실화(7건)와 쓰레기 소각 부주의(4건), 논·밭두렁 소각 부주의(5건) 등으로 인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13일 밤부터 단비가 예상돼 며칠째 이어졌던 건조특보는 해제될 전망이다. 이번 비의 양은 5㎜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여수 등 남해안 지방에는 좀 더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가뭄 해갈에는 역부족이지만, 수일째 계속된 건조특보가 해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부활절 "온누리에 평화를" 12일 부활절을 맞아 광주·전남 각 교회와 성당은 예배와 미사를 갖고 사랑과 평화가 온 세상에 넘치기를 기원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북동 주교좌 성당에서 최창무 대주교의 집전으로 '예수부활 대축일 미사'를 봉헌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어린이 인터넷신문 '푸른누리'의 기자들이 9일 광주지법을 방문해 김종복 판사를 상대로 질문공세를 펴고 있다. 〈광주지법 제공〉

"선생님께 촌지 주면 처벌받나요?"

어린이 기자들 송곳 질문 … 법원 관계자들 진땀

광주지법 견학 취재

"선생님에게 촌지를 주면 처벌받나요?"

"판사의 오판으로 피고인이 사형을 당하면 어떻게 하죠?"

지난 9일 취재차 법원을 방문한 어린이기자들이 광주지법 김종복 판사에게 던진 질문들이다. 이들은 청와대가 만드는 어린이 인터넷신문 '푸른누리(kidnews.president.go.kr)' 기자들로, 날카로운 질문공세를 펼쳐 법원 관계자들이 답변에 진땀을 뺐다.

이날 광주·전남지역 초등학생 10명으로 구성된 어린이 기자단은 광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을 방청한 뒤 김 판사를 상대로 열띤 취재 경쟁을 벌였다.

이들은 "하버드대학으로 유학가고 싶은데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도 우리나라에서 판사가 될 수 있나요?"나 "왜, 소년재판은 있는데 소녀재판은 없나요?" 등 평소 궁금한 사안들을 묻느라 여념이 없었다.

또 이들 가운데 미래의 법조인을 꿈꾸는 어린이들은 "어떻게 공부하면 판사가 될 수 있느냐?"를 비롯, "수많은 법 조문을 어떻게 다 외우느냐?", "판사가 되기 위해 몇 년을 공부했느냐?" 등을 질문했다.

이밖에도 일부 어린이들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판결을 내리도록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이나 '양측 주장이 맞설 때 공정한 판단을 하는 기준' 처럼 어른스러운 질문을 던져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 판사는 "어린이 기자들의 질문 수준이 상상외로 높아 적잖이 당황했다"며 "자유질의는 물론이고 법조 관련 질문이 너무도 날카로워서 답변하는 데 진땀을 빼야했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 기자들이 취재한 결과물은 매달 첫째, 셋째 주 목요일에 업데이트되는 '푸른누리' 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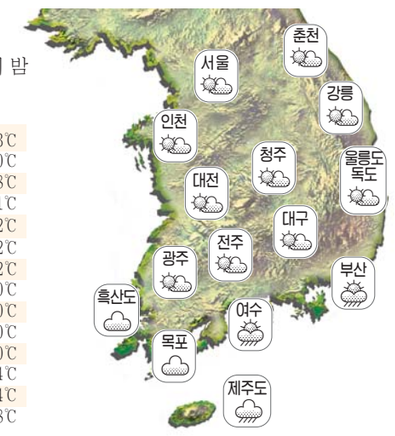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03분 해짐 19시 03분 달뜸 22시 58분 달짐 07시 47분

밤부터 비

차차 흐려져 남해안 지역에 밤부터 비가 조금 내리겠다.

광 주	맑은 뒤 흐림	11/23℃
목 포	흐 림	11/20℃
여 수	흐리고 한때 비	12/18℃
완 도	흐리고 한때 비	11/21℃
구 례	흐 림	6/22℃
해 남	흐리고 한때 비	7/22℃
장 흥	흐리고 한때 비	7/22℃
고 흥	흐리고 한때 비	8/20℃
순 천	흐리고 한때 비	10/20℃
영 광	맑은 뒤 흐림	6/20℃
진 도	흐리고 한때 비	8/20℃
전 주	맑은 뒤 흐림	8/24℃
남 원	맑은 뒤 흐림	7/24℃
흑산도	흐 림	12/18℃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	0.5~0.5m
먼바다	남~서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동	0.5~1.0m
먼바다	남동~남동	0.5~1.0m

	밀물	썰물
목포	04:25 16:06	09:28 21:25
여수	10:40 23:22	04:53 16:3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4(화)	15(수)	16(목)	17(금)	18(토)	19(일)
날 씨						
최저/최고	12/23	12/22	7/17	6/20	7/24	8/25

"음주사고도 보험금 전액 줘라"

법원 "20%만 주는 약관 무효"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져도 보험금을 모두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박경호 부장판사)는 12일 그린손 해보험이 교통사고로 숨진 H 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H 씨는 2003년 매달 10만원씩 내는 '무배당 다보장 상해보험'에 들었다. 이 보험의 약관에는 음주 ·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숨지면 보험금의 20%만 지급한다는 '감액 약관'이 명시돼 있었다.

그런데 H 씨는 작년 10월 강원 홍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 382%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스스로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그 자리에서 숨졌다. 유족들이 보험금을 신청하자 보험사는 전체 보험금 6천만원의 20%인 1천200만원만 지급했다.

이번 판결은 보험금 지급액을 20%로 제한하는 약관도 불법이라는 첫 판결로, 확정될 경우 비슷한 상품 가입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광주 마이스터고 내년 개교 박차

광주정보고에 134억 투입

광주시교육청이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 고교)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개교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이재민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10여명의 관계자가 함께하는 마이스터고 추진 태스크포스(전담반)을 구성했다. 전담반에는 기획추진, 교원지원, 시설지원, 교육과정, 행정지원 분과 등으로 10여명의 실무팀을 뒀다.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광주정보고도 교장을 팀장으로 한 학교 추진 전담반을 꾸렸다.

광주정보고에는 내년 3월 개교 전까지 1, 2학년 전원이 생활할 수 있는 기숙사 및 식당, 강당 신축비와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비 등 총 13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광주 마이스터고는 지역 중추산업인 자동화설비분야 인력 양성을 주목적으로 광(光) LED, 전기설비, 전자부품, 자동제어 등 4개과 160명을 선발, 운영된다.

모든 학생에게 학비 면제, 기숙사 제공, 산업체 산학 겸임교사 지원, 해외 현장학습, 외국어 연수기회 등을 주며 졸업 후에는 사전 협약을 한 20여개 지역 중견 기업체에 취업하게 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고법에 '조정센터' 신설

올 하반기 운영 … 민사조정 활성화

정식 재판 절차를 밟지 않고 신속하게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원 조정센터'가 전국 고등법원에 신설된다.

특히 '조정센터'에 회부된 사건의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경륜을 갖춘 상임 조정위원들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사조정제도'의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과 부산고등법원에 각각 13일, 20일 조정센터가 설치·운영되는 것을 비롯, 하반기부터는 광주·대전·대구 등 전국 고법으로 확대된다.

상임 조정위원은 15년 이상 법조 경력자 가운데 선임돼 민사조정의 활성화를 꾀하게 된다. 이들은 단독으로 조정하거나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조정장이 되는 등 조정담당 판사와 같은 권한을 갖는다.

그동안 민사조정제도는 현직 법관이 조정전담 판사까지 맡고 조정 위원회 역시 비정기적으로 운영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민사 본안 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조정처리 비율이 5% 미만에 불과해 조정기능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민사조정제도는 민사상 분쟁을 소송을 통하지 않고 판사나 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의해 해결하는 것으로, 양당사자가 조정안에 합의하면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법원은 앞으로 사건 당사자들이 처음부터 조정 절차를 요구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정센터'에 맡길 방침이다. 또 정식으로 소를 제기한 사건도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조정센터'에서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